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신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2면에서 계속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과 행동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기본원칙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란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파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는데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세우는 것은 현시기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강조하였다.

세기를 이어온 반미전면대결전을 쟁결산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침밀하게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오늘의 장엄하고 보람찬 투쟁은 우리 당과 군대를 철두철미 수령의 당, 수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며 천만군민이 행동자와 사상과 뜻도 같이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여 이 땅, 이

하늘아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둘어쥐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의 사상으로 톤튼히 무장시켜 그들모두를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상과 신념의 거인으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뼈와 살로 만들고 결사판결하는 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와도 날카롭게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풍을 세우고 당의

명령, 지시를 최단기간내에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오직 최고사령관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 전군이 우리의 일심단결을 과파하고 좀먹는 세도와 판로주의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조직들과 정치 기관들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세도와 판로주의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근기 있게 밀고나가 그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사

상생활에 누구나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

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속에서

당성단련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

전군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들통히 꾸려 그 기능과 역

할을 높이며 당일군, 정치일군대령을 잘

무릴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밝힌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아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하며 혁명가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자신밖에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여기에서 인민군대가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

과 혁명발전에서 분수령으로 되는 당

제7차대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용기백배, 기세충천

하여 뜻깊은 융해의 총진군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영예로운 승

리자가 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앞길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

일수록 우리의 혁명신념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헌신분투

해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줄 승리의 훈계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두다 총돌격, 총매진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여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크나큰 각정에 넘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퍼쳐울리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는 주체혁명위업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불폐의 통일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며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새로운 단계에로 실현해나가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 높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를 높이 달고 전당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억세게 전진해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 만이 있을것이다.